

오늘의 불교는 오늘의 우리 불자들이 세운 불국토이다. 부처님의 불국토가 그 수행의 공덕으로 장엄되듯이 '오늘' 우리 불교의 모습은 우리 불자들의 서원과 수행으로 장엄된 우리들의 불국토이다.

불국토 건설이라는 말은 아득한 미래의 일로 돌리려 해서 안된다. 불교는 훌륭하지만 오늘의 불자들이 승단이 그 훌륭한 가르침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변명해서 안된다. 바로 오늘의 우리 불교 교단은 오늘의 우리 불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공을 초월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바로 오늘 우리의 수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당하다.

공동체 더 아름답게

이렇게 보아야만 바로 오늘의 우리 불교 교단을 통하여 우리의 불국토를 건설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우리 불교 교단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며, 오늘의 교단을 바로 세우에

의하여 우리들의 불국토를 장엄하고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이 생기게 된다. 실로 우리 불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성불과 불국토 건설이라는 떨어질 수 없는 두 과제를 분리시켜 생각하거나, 너무 추상적인 영역에 둔다는 데 있다. 불교는 전혀 이질적인 사회 속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개인들을 키워내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이 열여섯살에 보신 참다운 수행을 실현해 가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공동체야말로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수행으로 가꾸어내는 불국토인 것이다. 그러한 정토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며 빛을 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좀더 아름답게 가꾸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불국토를 넓혀가는 것이요 장엄하는 것이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 등을 비롯한 불교계의 모습들을 이제는 우리들의 수행이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의 불국토라는 눈으로 새롭게 보자. 나와 관계없는 남의 일로 비판하던 자세를 버리고, 오늘의 불교 현실에서 우리의 수행을 돌아보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상보다 실천중시

그리고 우리의 불국토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 않도록 내 개인의 수행을 챙기며,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불국토를 장엄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불교의 중심을 이루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가 이런 올바른 의식으로 설 때 오늘의 불교가 바로 설 것이다.

이제는 우리 불교가 가진 너무나 많은 문

제들에 매달려 씨름하는 소송적 자세를 버려야 할 때이다. 앞서 말한 바른 인식 아래 우리가 세워가야 할 불국토에 대한 서원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향해 움직이는 새로운 힘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서원이 바르게 서고 그것을 향한 뜨거운 움직임을 이룰 때에만 오늘의 문제도 바르게 보여지고 바르게 해결된다. 일시적인 교육적으로 문제를 미봉하는 관행으로는 불교를 바꾸어 나갈 수 없다. 개인의 삶이나 사회나 부정적인 질타보다는 긍정적인 올바른 서원에 의해 이끌어져야 바르게 서는 것이다. 우리 한국불교가 오랜 미망의 늪에서 벗어나 오늘의 사회에 바른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힘있는 생명으로 우리 사회에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불자들이 함께 하는 서원이 바르게 서야만 하는 것이다.

늘 사후서원을 되뇌이는 것으로 서원을 발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근원적인 서원을 우리의 현실속에 실현할 수 있는 가까운 서원들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너무도 아득하여 오히려 관념의 영역에 머물 위험이 있는 큰 서원에 징검다리를 놓아야 한다.

باط고 살맛나는 세상

또 한번에 모든 불자들이 함께 하는 서원을 남이 단번에 세워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나의 서원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야 한다. 너의 서원과 나의 서원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모여서 함께 하는 큰 서원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레아면 현실 문명과 사회의 병폐를 뚫어서 지적하며 정신적인 안식처로 자처하는, 소극적이고 퇴역한 불자들이 함께 하는 서원이 바르게 서야만 하는 것이다.

회를 바꾸어 나가는 불자, 불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새해라는 시간의 전기, 그것도 진정한 새해의 시작이라는 2001년을 맞으면서 그 시간의 기점에 우리의 참된 공덕을 쌓자.

우리의 서원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우며, 그것을 나누고 모아 희망찬 미래 불교의 모습을 그려내는 일을 시작하자. 내가 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좀더 맑고 밝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자신과 불교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그 서원을 향해 한걸음씩 걸어 나갈 자신과 불교의 이정표를 그려보자. 우리 주변에 이미 그러한 미래를 향해 자라고 있는 소중한 싹들을 발견하려는 긍정적인 눈을 뜨자. 한 술 밥에 배부르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싹들을 소중히 키워 나가며, 자신도 미래 불교의 아름다운 동산을 장엄할 그러한 싹이 되기를 서원하자.

밝은 새 아침, 그러한 소중한 싹들의 서원들을 나누고 또 모아 부처님 땅이 되고자 하는 서원으로 새해를 맞는다.

조계종 전문포교사 양성

2년과정 아카데미 설립...이론·현장수업 병행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이 포교사전문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4월 개교할 예정인 포교사전문 아카데미는 정보화 다양화 시대를 맞아 포교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포교 현장 경험위주의 교육을 통한 전문포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교사 전문아카데미는 2년 과정 24학점 이수제로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 2시간의 이론수업과 현장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수강과목은 불교상담, 포교방법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수행론, 지도자 조직 경영과정, 신도기본교육과정, 불교와 사회, 타종교포교방법 이해와 연

구, 불전개설 등이며 과목당 30시간씩 총 270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 포교사교육과 불교대학원 수료, 사찰 수행프로그램 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 국가자격 취득 시가 산점도 부여한다.

아카데미를 졸업한 포교사는 포교 활동 실적과 과목이수 능력, 포교논문, 종합평가를 거쳐 전문포교사 자격을 수여받는다. 전문포교사는 포교원이 정한 지도자교육을 이수한 후 포교법에 정하고 있는 전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포교사단은 이 달 말까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커리큘럼 및 운영학적

을 제정할 예정이다. 2월경 교재발간, 강사진 구성을 확정한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해두고 있다. 포교사 아카데미는 올해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시스템을 보완한 후 2002년부터 포교사전문 아카데미 교육을 분교형태로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병 단장은 "굳건한 원력과 신앙심을 갖춘 전문포교사 양성은 시급한 과제이다. 포교사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포교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中 외국인 선교자제 요청

종교부장 5일 방한...종교정책 설명

중국 정부의 종교국 고위간부가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 불교 등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한국종교계의 중국 포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관광부는 구랍 22일 중국 종교국 왕쩌안 부국장이 5일부터 6박7일간 방한해 각 종교지도자와 문광부 중무실 관계자들을 만나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왕 부국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중국의 종교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개신교계의 중국 선교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는 30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등이 모여 법회를 봉행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을 지난해 9월 제정한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해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의 종교조직 창설, 사무기구 설립,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할 수 없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종교신도를 확장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실상 포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조불련 창립 55돌 법회

6.15 선언 실천 주장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이 창립 55주년을 맞아 구랍 26일 평양에서 기념보고회를 가졌다고 평양방송이 구랍 27일 보도했다.

평양방송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이날자 보도에 따르면, 보고회에는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시·군 위원회 교직원, 각 사찰 주지, 평양 시내 승려와 신도, 학자들이 참석했으며, 박태화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운거려가 확고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45년 결성된 조불련은 70-80년대에는 대남선전활동을 주로 했으며, 이후에는 식량난 해소를 위한 지원 창구와 남한불교계와의 접촉을 맡고 있다. 북한은 조불련 주최로 88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도절 열반절 등에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12월 27일 취임법회를 가진 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 종연스님(중위임사)에서 '종단전반에 대한 발전책을 마련 임시총회에 제출하고 투명한 총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단 발전대책 조속수립”

태고종 종무원장 취임

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 종연스님의 취임법회가 구랍 27일 중앙불교포교관 설립전에서 사부대중 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33년의 타종으로 시작된 법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에 이어 일운 총무부장의 인사말, 종정 법암스님의 법어, 총무원장 약력소개, 취임사, 각계 축하,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취임사에서 종연스님은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인연과 종도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절대적인 애종심과 공심을 가지고 종단의총흥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종단 전반에 대한 발전책을 마련하여 신년도 임시총회에 제출하고, 전 종도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총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공수사랑 이행을 재천명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포교원 신년하례

13~14일 계룡산서

조계종 포교원장장 정래은은 13, 14일 공주 계룡산 갑사유스호스텔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하례법회는 포교원과 산하단

체 임원들이 참석하여 2001년을 시작하면서 포교원력을 다지고 2000년을 되돌아보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각 교구부사 포교국장스님과 교구단 경승단, 포교사단, 교법사단, 경향신도회 등의 포교·신도단체임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국회 성보조사비 백지화

교계 “예비비 총당” 촉구

교계의 관심을 모았던 문화재청의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백지화됐다.

이 조사비는 일제시대의 '본 말사 소장 목록 조사' 이후 두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불교 문화재를 조사할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황 조사를 토대로 문화재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대해 교계는 "정부는 왜 중요한 기초조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겠

는가"라고 반문하고, "비지정문화재 현황 조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비비에서라도 총당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는 문화재청이 2001년부터 계획했던 연차사업으로, 1개 도마다 5억 원을 책정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정·비지정 불교 문화재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이 과정에서 비지정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조망하고, 지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오종욱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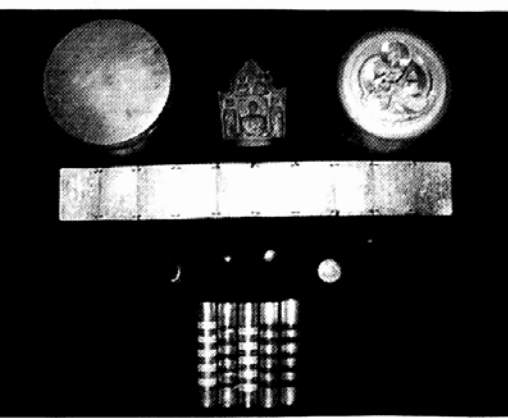


새해엔 신나게...

신년벽두! 호암사에 가면 희유한 인연공덕이 있다

귀의삼보 하옵고,

신사년 새해를 맞아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 자비공명과 가피가 충만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호암산 호암사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서원으로 참불자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여 무량한 지혜와 공덕의 복전을 일구는 삶을 살아 갈 것을 서원하기 위해 부처님 성도일로부터 49일간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봉행 합니다. 일찍이 태국 왕실사원에 봉안되었다가 참으로 희유한 인연에 의해 불가사의한 과정을 거쳐 호암사에 봉안예정인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한해를 설계하는 시간, 호암산 호암사에 오셔서 희유한 인연공덕을 맺으시고 활기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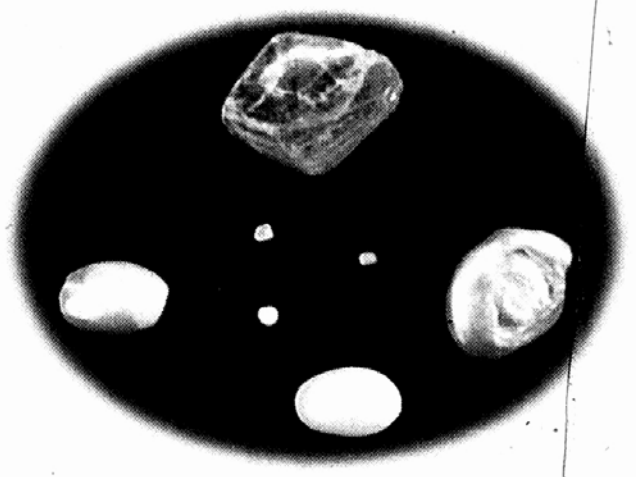
태국왕실 사원에서 모셔온 사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 안내>

- ◎ 입 재 : 2001년 1월 2일 (음력 12월 8일) 오전 10시
- ◎ 회 향 : 2001년 2월 19일 (음력 1월 27일) 오전 10시
- ◎ 동참금 : 2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호암사 주지 석원욱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34번지
전화 02) 803-4779 팩스 02) 891-0770



호암사의 유래

서울의 안녕을 지키는 호암사

호암산 호암사는 조선의 개국에 때맞춰 창건된 사찰이다. 조선 태조 2년에 설치된 신도궁궐 조성도감에서 궁궐을 지었는데 궁궐이 다 지어질 무렵 건축이 허물어지기를 몇 차례, 태조는 꿈에 호암산이 호랑이 형세여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태조의 왕사 수학대사도 호암산이 호랑이가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보고 범부위 사쪽에 절을 세우고 북쪽으로 10리 지점에 궁교(弓橋)를 만들고 또 북쪽 10리 지점에 사찰을 지었다. 호암사는 이같은 풍수지리상의 비보사찰로 지어져 조선 5백년의 역사 동안 한양을 굽어보며 왕실과 나라의 안녕을 지켜 온 유서깊은 사찰이다. 호암사는 호암산의 정기가 모여져 있는 호랑이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도처로 유명하고 스님들의 정진원력이 성취되는 수승한 도량으로도 알려져 있다. 호암사는 1994년 10년 중창불사를 발원하여 일주문을 세우고 법당과 삼성각을 신축하고 요사채도 단장했다. 앞으로는 보제루와 범종각을 신축하여 사격을 일신하기 위해 중창불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